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 연구

구 남 옥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강의전담전임강사

A Study on the *Mokpan-Dangkogit* which was appeared on Male Clothing in the Lee Dynasty

Nam-Ok Ku

Instruct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Jeonju University

(2004. 8. 6 투고)

ABSTRACT

Mokpan-dangkogit was one pattern of collars normally attached to female clothing in Lee Dynasty and it was very rare that a collar of *Mokpan-dangkogit* was found in male clothing particularly under the Confucianism-dominated society.

The detailed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o summarize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n collar of Lee Dynasty along with characteristics of each collar in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various types of *Mokpan-dangkogit* found in male clothing in the era of Lee Dynasty through relics of the past; and To analyze a period of time which *Mokpan-dangkogit* first appeared in the process of clothing history of Lee Dynasty and those who wore it. In conclusion, a relationship between female *Mokpan-dangkogit* and male counterpart was discussed.

Key words : collar(깃), *Mokpan-Dangkogit*(목판당코깃), *Dangkogit*(당코깃), *Jobok*(朝服), *Jeabok*(祭服), *Dopoh*(道袍), *Changui*(釐衣), *Cheollic*(天翼), *Jigreong*(直領)

I. 서론

깃은 상의류의 목 부위를 감싸는 복식의 세부명칭으로 한자로는 襟, 領, 任, 衿, 衿, 袷, 襖 등¹⁾으로 쓰인다. 깃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의복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양의복의 칼라나 넥라인(neck-line)과 같이 디자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단령, 직령 등과 같이 깃의 모양이 의복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 복식 명칭이 되기도 하며, 옷 한 벌에

대부분 깃이 달려 있으므로 의복을 세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

당코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유행한 깃 모양으로 동정 아래 부분이 깎여 뾰족한 코를 형성하고 있다. 이 깃은 우리 민족만의 매우 독창적인 깃 형태로, 조선 초기 목판깃에서 후기 칼깃으로 변화하는 중간단계인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유행하였으며 깃머리형태에 따라 목판당코깃과 당코깃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당코깃은 대부분 여자 저고리와 당의에 달려 있

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몇 남자복식에서 목판당코깃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이성(異性)의 복식을 착용하는 것을 '복요(服妖)'¹⁾라 하여 금하였던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에서 남자복식에 여자들의 깃 모양이 나타난 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여자 복식의 특징인 목판당코깃이 나타나게 된 현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조선시대에 나타난 깃을 여미는 방법과 걸깃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목판당코깃이 달려 있는 남자복식의 종류를 유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복식의 변천과정 중에서 목판당코깃이 나타난 시기 및 착용자에 대하여 분석하고 여자 당코깃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내렸다.

자료는 유물보고서에 발표된 내용과 사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I. 조선시대 깃의 종류

1. 깃의 분류

깃은 학자에 따라 형태별로만 구분³⁾하기도 하며 형태, 문양, 세부형태⁴⁾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명칭, 문양, 색⁵⁾ 별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깃의 특징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미는 방식과 걸깃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명명하였다. <표 1>

여미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교임(交衿)과 대금(對衿)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임은 좌우 깃이 교차하여 몸을 감싸 여머지는 형태이며 대금은 좌우 깃이 앞 중심선에 모여 교차됨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교임의 경우 좌우 깃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금은 좌우 깃의 모양이 같다.

형태별로 분류하면 크게 둥근형과 곧은형, 그리고 각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는 걸으로 드러난 깃 모양에 따라 나눈 것이다. 둥근형은 깃의

모양이 원형(圓形)인 깃을 의미하며 단령, 원삼깃이 여기에 속한다. 곧은형은 직선형태의 깃을 의미하며 깃머리의 형태에 따라 목판깃, 당코깃, 칼깃, 교령 등으로 나뉜다. 각진형은 사각형 형태의 깃으로 일반적으로 방령이라 하며 교임방령, 대금방령, 이중방령 등이 해당된다.

2. 깃의 종류 및 특징

앞에서 분류한 깃을 근거하여 조선시대 깃의 종류 및 특징과 해당되는 복식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령은 교임에 걸깃은 둥근형이고 안깃은 곧은 형태의 깃을 의미하며, 모양이 원형(圓形)이므로 원령(圓領)이라고 하기도 한다. 단령은 단령, 앵삼 등의 관복의 깃이 해당된다. 단령은 진덕여왕 2년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관복을 사여 받은 때로부터 고종의 의제개혁 전까지 관복으로 착용되어 온 의복이다. 조선시대의 단령은 시기 별로 깃의 형태가 조금씩 변하여 깃의 형태로 시대를 파악하기도 한다.

목판깃은 교임의 곧은 깃으로 걸깃과 안깃의 깃머리 모양이 사각형인 깃을 의미한다. 이 깃은 섶에 얹혀진 정도에 따라 목판깃, 반목판깃, 장의목판깃으로 나눌 수 있다. 목판깃은 깃머리가 섶 밖으로 완전히 돌출된 형태의 깃을 의미하며 반목판깃은 깃머리가 섶 안으로 반 정도 삼입된 형태를 말한다. 이 깃들은 임진왜란 이전인 15, 16세기 여자 저고리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장의목판깃은 깃머리가 섶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으로 장의(長衣)의 깃 형태이다.

당코깃은 당코가 형성된 깃으로 깃머리 모양에 따라 목판당코깃과 당코깃으로 나눌 수 있다. 목판당코깃은 교임의 곧은 깃으로 반목판깃에서 섶 밖으로 돌출된 모서리가 깎여져 당코가 형성된 깃을 의미하며 안깃은 목판깃이다. 이 깃은 조선시대 복식 중 임진왜란 이후인 17, 18세기에 유행하였던 형태로 여자의 저고리와 당의, 그리고 일부 남자포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코깃은 교임의 곧은 깃으로 목판 당코깃의 깃머리 부분이 둥글게 변한 깃

<표 1>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깃의 분류

여밈	교 입						
형태	등근형	곧은형					당코깃
명칭	단령	목판깃			당코깃		
		이중목판깃	목판깃	반목판깃	장의목판깃	목판당코깃	당코깃
도식화							
의복종류	단령, 앵삼 등	15C 남자 포	저고리	저고리	장의	저고리, 당의, 조복, 제복 일부 남자 포	저고리, 당의
여밈	교 입					대 금	
형태	곧은형			각진형			등근형
명칭	칼깃		교령	방령			원삼깃
	칼깃	이중칼깃		교입방령	대금방령	이중방령	
도식화							
의복종류	저고리, 포류	16C 남자 포	장복, 적의, 중단, 심의	심의	방령, 답호, 전복	방령	원삼, 전복, 배자, 사규삼

깃 형태로 안깃의 형태는 목판깃이다. 이 깃은 목판 당코깃이 칼깃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형성된 것으로 19세기 여자의 저고리와 당의의 깃에 나타나 있다.

칼깃은 교입의 곧은 깃으로 깃머리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등그레깃⁶⁾, 동구레깃⁷⁾, 동그대깃⁸⁾, 등근깃⁹⁾이라 칭하기도 한다. 조선 전기 남자 저고리를 포함한 남자 상의류 깃 대부분이 칼깃이며 여자의 경우 19세기 이후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깃이 해당된다.

이중깃은 깃 나비의 가운데 부분에 솔기선이 있는 깃을 의미하며 쌍깃¹⁰⁾이라고 하기도 한다. 곧은형의 경우 깃머리의 형태에 따라 이중목판깃과 이중칼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진형의 경우 이중방령이 있다.

목판형 이중깃은 조선 초기인 15세기 출토복식¹¹⁾에서 나타난 깃 종류이다. 목판깃 깃머리의 각진 부분이 위쪽으로 꺾여진 모양이므로 예각 반

목판형 이중깃¹²⁾이라 명명되기도 하였으며 칼깃형 이중깃과 구별 없이 이중칼깃¹³⁾이라고도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이 깃을 통해 목판깃에서 칼깃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중칼깃은 이중목판깃의 각진 부분이 꺾여 칼깃의 형태만 남은 것으로 16세기에서 임진왜란 전까지의 직령, 답호, 철릭 등 남자 포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령은 교입의 곧은형의 깃으로 단까지 곧게 이어진 깃을 의미하며 직령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복, 적의, 심의와 중단이 여기에 해당 된다. 특히 왕의 장복과 왕비 적의의 중단의 경우 불(黻)자가 표현되어 있어 불령(黻領)이라고 하기도 한다.

방령은 각이진 깃을 의미한다. 여밈 방법에 따라 교입과 대금형이 있다. 교입방령과 대금방령, 그리고 이중방령으로 나눌 수 있다.

교입방령은 각진 깃이 교입으로 구성된 깃을 의미하며 방령심의가 이 깃 모양을 하고 있다. 대금

방령은 각진 것이 대금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하며 방령 반수포와 답호, 전복 일부가 이 것으로 제작되어 있다. 이중방령은 깃 두 종류가 합쳐진 복합양식으로 방령 아래에 직령 깃이 연결되어 있다. 역시 깃 나비 가운데 솔기선이 있다. 이러한 깃 양식은 명나라 효정왕후 왕씨의 출토품¹⁴⁾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 「樂學軌範」의 단갑(段甲)과 방령¹⁵⁾, 반비(半臂)¹⁶⁾ 혹은 구의(裘衣)¹⁷⁾ 등으로 명명되어 있는 포 등이 있다.

원삼깃은 대금의 둥근형 깃으로 좌우 깃 모양이 같다. 원삼과 전복, 배자와 사규삼 등이 이러한 깃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일부 대금형반수의(의원군 유물 등)에서도 원삼깃이 발견되고 있다.

Ⅲ.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 분석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목판당코깃은 조선시

대 중기 이후에 유행한 깃 모양으로 주로 여자 저고리와 당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몇 남성용 포에서 목판당코깃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 유물은 여러 점의 조복·제복과 창의류 2점과 도포 2점, 철릭 1점, 직령 2점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1. 복식의 종류

1) 조복

조복(朝服)은 문무백관이 대사·원단·동지·경축일·조칙을 반포할 때와 진표할 때 입었던 관복으로 가장 화려하며 금관과 같이 착용한다고 하여 금관조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부터 한(漢)의 조복을 사여 받은 후 신라는 당의 제도를, 고려는 송의 제도를 추종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16년

<표 2>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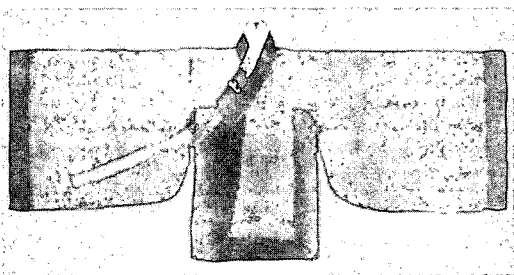
유물	성명	생몰년도	발견지역	소장처
조복	밀창군	1677-1746	서울 상암동	석주선기념박물관
	정간공 이억정	1699-1782	서울 상암동	석주선기념박물관
	청연군주 夫 김기성	1754-1821	경기 광주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용	1783-1873		국립민속박물관
	홍완군	1815-1845		숙명여대박물관
	김병익	1818-1875		고려대학교박물관
	심동신	1850년대		석주선기념박물관
	홍선대원군	1820-1898		이화여대박물관
	김병기	1827		고려대학교박물관
제복	황철	1864-1930		담인복식미술관
	김병국	1825-1909	경기 반월	온양민속박물관
	정원용	1783-1873		국립민속박물관
	홍완군	1815-1845		숙명여대박물관
	?	1850년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직령	?	조선 후기		고려대학교박물관
	?	조선 후기		고려대학교박물관
창의	의원군	1661-1722	경기도 광주	경기도 박물관
	연령군	1699-1719	서울 상도동 사자암	동국대학교박물관
도포	광해군	1575-1641	경남 해인사	해인사
	의원군	1661-1722	경기도 광주	경기도 박물관
철릭	의원군	1661-1722	경기도 광주	경기도 박물관
	영조	1740	경북 파계사	파계사
	정익	1652-?	황해도 태탄군	북한

(1416) 1월 관복색을 임시로 설치하여 명의 홍무 예제(洪武禮制)에 준한 조복과 제복을 제정하였고¹⁸⁾ 세종 8년(1425) 당제와 송제, 홍무예제, 대명 집례 등을 참조하여 조복제도를 확정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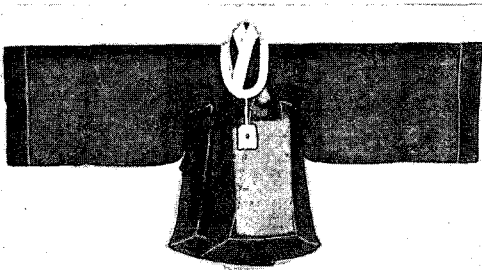
조선시대 조복은 양관(梁冠), 혁대, 패옥, 후수, 홀, 적라의·백사중단, 적라상, 적라폐슬, 대대, 백말(白襪), 흑리(黑履), 각잠(角簪)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⁹⁾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복은 백초중단이 아닌 청초중단이며 폐슬의 크기도 작아져, 예전에 별도로 착용하던 것이 제복의 '눈물받이' 같이 적초의에 부착되어 있다.

조복제도는 고종 의제개혁에도 예외규정으로 들 만큼 최고의 예복으로서 전통을 고수하였으며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3월 서양식으로 공사(公私)예복이 개정될 때까지 근 500년간 시행되었다.

현존하는 조복 유물은 모두 목판당코깃이 달려 있다. <도 1>은 조복 유물 중 연도가 가장 높은 밀창군(1677-1746)의 적초의이다. 목판당코깃이 달려 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말의 적초의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도 1> 밀창군 조복, 한국복식, vol. 22 p. 146.



<도 2> 정원용 제복, 한국복식 이천년,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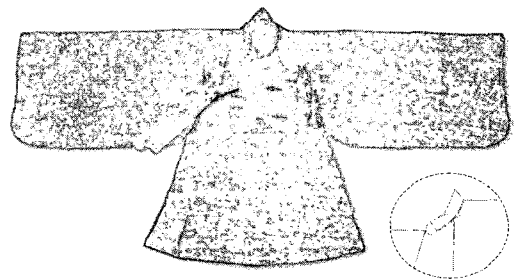
2) 제복

제복은 왕과 왕비의 위패(位牌)를 모신 종묘에 봉사(奉祀)한 때 문무백관이 착용한 예복이다. 제복은 양관(梁冠), 청초의(靑綃衣), 적초상(赤綃裳), 백초중단(白綃中單), 폐슬(蔽膝), 대대(大帶), 혁대(革帶), 패옥(佩玉), 후수(後繡), 말(襪), 화(靴), 홀(笏)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제는 조복과 동일하나 화려한 조복의 복색과는 달리 흑백의 색을 주로 사용한 것과 깃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한 것 등이 차이가 있다. 조선 초에는 청초의(靑綃衣)에 백초중단에 흑선을 둘러 착용하였으며 국말에는 흑단령에 방심곡령을 착용하였다.²⁰⁾ 그러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 청초의의 색이 청색이 아닌 흑색이며, 깃도 조복과 같이 당코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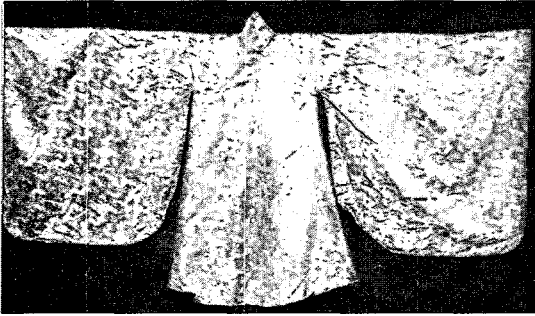
<도 2>는 착장자가 밝혀진 제복 유물 중에서 가장 연대가 높은 정원용(1783-1873)의 제복이다. 목판당코깃에 방심곡령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직령

직령은 글자 그대로 곧은 깃의 포를 지칭하는 경우와 단령과 같은 형태에 깃이 곧은데서 명칭이 유래된 관복 포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직령은 후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령의 받침옷[褻衣] 혹은 독립된 포로서 착용되어 사대부들의 연거 및 외출 시의 상복(上服)으로,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도 3> 의원군 단령과 직령,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14.



<도 4> 연령군 직령,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전해지고 있는 직령 유물은 대부분 칼깃이 달려 있으나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선조의 5대 손인 의원군의 연화만초문단 홀직령²¹⁾과 상도동 사자암의 목불(木佛)에서 발견된 숙종의 셋째 아들인 연령군의 운문단 직령이 목판당코깃이다. <도 3, 4> 두 점 모두 단령의 받침옷이었다.

4) 창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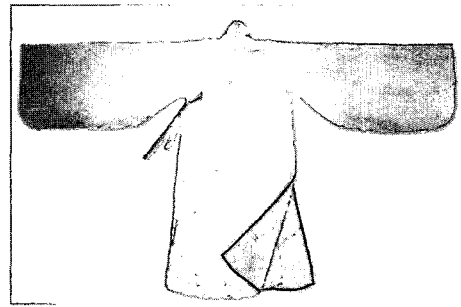
창의류는 옆이나 뒤에 트임(창)이 있는 의복을 뜻한다. 창의는 일반적으로 소매모양과 트임 위치에 따라 대창의(大擘衣), 소창의(小擘衣), 학창의(鶴擘衣), 중치막(中致莫) 등으로 분류된다. <표 3>은 창의류 분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무가 있고 옆트임에 광수의 포(신언식 자부 허씨, 정양우 출토품)와 무가 있고 뒤트임에 착수인 포(홍우협 출토품) 등 아래와 같은 분류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고가 요구된다.

창의가 조선시대에 문헌에 나타난 것은 「朝鮮王朝實錄」세조 2년(1456) 3월 기록²²⁾ 중 행행(行幸)시 근장(近仗)의 복식으로 나와 있는 '학창(鶴擘)'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학창은 우의(羽衣)라고도 하며 송(宋)대의 문인, 시인(詩客), 은둔자들이 착용하던 포였다.²³⁾ 「高麗史」에 학창의를 입었다는 기록²⁴⁾이 있으므로 학창의는 송으로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부터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의 학창의는 대창의 모양에 흑색 가선이 둘러있는 포로 중국의 우의와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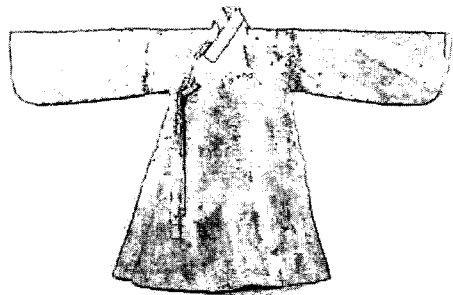
임진왜란 전후에 생존한 인물의 출토품²⁵⁾에서

창의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 임진왜란 전후부터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17세기 후부터 확산되어 공복의 받침옷으로, 사대부와 서민의 걸옷으로서 고종 21년 갑신외척개혁(1884)으로 금지되기 이전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거의 대부분 창의류의 깃은 칼깃이나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선조의 5대 손인 의원군의 누비 중치막과 해인사에서 발견된 광해군의 담청운문단 창의²⁶⁾가 목판당코깃이다. <도 5, 6>



<도 5> 의원군 중치막, 전주이씨묘 출토품식 조사보고서, p. 25.



<도 6> 광해군 창의, 문화재대관, p. 19.

5) 도포

도포는 등 뒤에 한 자락이 더 달려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이며 기원과 착용 시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다.

도포의 기원은 자생설과 중국전래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자생설은 한원진의 「南塘草稿」²⁷⁾와 안엽의 「述古常制」²⁸⁾, 그리고 김동

<표 3> 창의를류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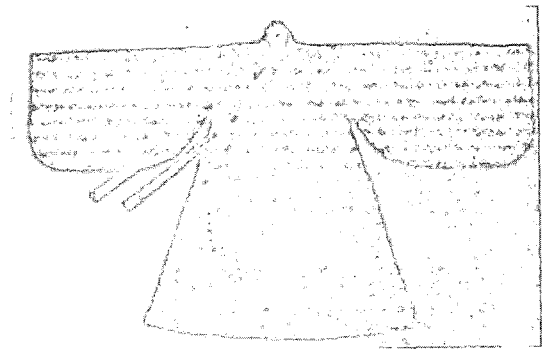
학자	고복남	김미자	석주선	김용서	백영자	유희경	유송옥	이선재	조효순
출처	한국전통복식사연구 p.269,339	우리나라 포의 종류와변천	한국복식	한국복식사 p.110	한국의 의복 p.196	한국복식문화사전 pp.352-3	한국복식사 pp.239-41	유교사상과 의례복 p.119	한국복식 풍속사연구 p.315
종류									
大襟衣	광수 뒤트임, 옆트임	광수 뒤트임, 무 o	뒤트임 구분 없이 창의로 분류	광수 뒤트임, 옆트임(10-20cm) 무 o	광수 뒤트임, 옆트임(10-20cm) 무 o	광수 뒤트임, 옆트임	광수 뒤트임, 옆트임	광수 뒤트임, 옆트임, 무 o	광수 뒤트임, 옆트임
小襟衣	착수 옆트임	착수 옆트임 무 x		착수 옆트임 무 x	착수 옆트임 무 x	착수 옆트임	착수 옆트임	착수 옆트임 무 x	착수 옆트임
中致莫	광수 옆트임	광수 옆트임 무 x	옆트임	광수 옆트임 무 x	광수 옆트임 무 x	광수 옆트임 무 x	광수 옆트임 무 x	광수 옆트임 무 x	대창의와 같음
鶴襟衣	광수 뒤트임 무 o 가선	광수 뒤트임 무 o 가선	가선			광수 뒤트임, 옆트임 무 o 가선	광수 뒤트임, 옆트임 무 o 가선	광수 뒤트임 무 o 가선	

옥29), 유희경³⁰⁾, 장인우³¹⁾ 등의 주장으로 도포를 직령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전래설은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도포변증설에 기원을 둔 것으로 임영자³²⁾가 이에 동의하여 도포를 중국의 불교, 도교의 종교복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으며 이은주³³⁾도 종교복식과 연계는 아니나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포 착용 시점은 「宣祖實錄」(1607)³⁴⁾과 「孝宗實錄」(1657)³⁵⁾, 「增補文獻備考」에 나타나있는 기록으로 임진왜란 후부터 착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은주³⁶⁾는 문헌상으로는 김세협(1593-1646)의 「贈禮曹判書郭越神道碑銘并書」³⁷⁾를 근거로 도포는 임진왜란 이전인 명종대(1564) 이미 착용되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유물로는 고려 말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유물 중 직령으로 발표되어 있는 포를 가장 오래된 도포유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포는 고려시대부터 착용되어 조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널리 착용되었으며 고종의 의제개혁으로 폐지된 뒤 가제(家祭)의 제복으로만 착용되었다.

도포가 현재까지 가제에 착용되고 있는 까닭에



<도 8> 의원군 도포,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24.



<도 9> 영조 도포,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유물은 비교적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목판당코깃의 도포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선조의 5대 손인 의원군의 겹도포와 경북 달성군 파계사에서 발견된 영조의 청사도포가 전해지고 있다.<도 7, 8>

6) 철릭

철릭은 주로 용복(戎服)으로 착용된 포로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출토복식 중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되고 있으며 조선 전(全) 기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철릭은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몽고 전래되었으며 어원도 몽골어의 Telig(텔릭)에서 차용된 것³⁸⁾이기 때문에 貼里, 帖里, 帖裏, 帖裏, 忝里, 天益, 千翼, 天翼, 綴翼 등 다양한 한자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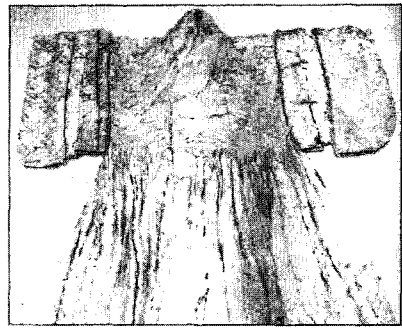
철릭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연결된 원피스형으로 상의 폭이 매우 넓으며 주름을 잡아 의에 연결하였다. 주름은 조선 전기에는 0.1cm 정도로 매우 곱고 정교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넓어졌다. 의와 상의 비율도 시대에 따라 달라, 조선 전기에는 의의 비율이 더 길며 후기로 갈수록 상의 비율이 길어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와 상의 비율은 주름의 나비와 더불어 철릭의 시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조선 초 철릭은 답호와 함께 단령의 반침옷으로 착용되었다. 유사시 단령만 벗으면 바로 용복차림이 되었는데 이것은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정신무장의 상징으로 '古道帖裏'³⁹⁾라 하였다.

용복으로서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고름과 소매에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소매의 경우 탈착이 가능하도록 단추로 연결되었다. 유물에 따라 한쪽, 혹은 양쪽 모두 단추로 연결되어있는데 유사시에 소매를 떼면 반소매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유물 중 고름이 허리를 한번 감아 댈 수 있도록 길게 구성되어있는 것도 있다. 고름이 풀리지 않으며 안정된 착용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소매와 고름은 임진왜란 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철릭의 깃은 임진왜란 전에는 이중칼깃이 대부분이며 그 후로는 칼깃이었다. 철릭에 목판당코깃이 나타난 것은 황해도 태탄군에서 출토된 정익(1652-?)의 운문단 철릭이 유일하다.<도 9>



<도 10> 정익 철릭.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V, p. 82.

2. 착용자 분석⁴⁰⁾

목판당코깃이 달린 남자복식 중 예복인 조복과 제복을 제외한 포를 착용하였던 인물은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의원군(義原君, 1661- 1722), 영조(英祖, 1694-1776), 연령군(延齡君, 1699-1719), 정익(1652-?) 등이다.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1608~1623)으로 임진왜란 직후 등극하여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광해군의 유물은 해인사 중도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목판당코깃 창외의 외에 광해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적삼 1점과 중궁 유씨 당의 1벌, 그리고 상궁 권씨의 저고리가 있다⁴¹⁾. 목판깃인 상궁 권씨의 저고리를 제외하고 모두 목판당코깃이 부착되어 있다. 이 외에도 석주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중궁 유씨의 목판당코깃 당의가 1벌 있다.

의원군은 인평대군의 장남인 복녕군(福寧君) 옥(楸)의 차남으로 흥선대원군 이항응의 5대조로 조선 후기 왕실의 혈통을 계승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흥록대부에 추증되었다.⁴²⁾ 경기도 하남시에서 출토된 의원군의 유물은 총 60점이며 그 중 복식은 26벌이다. 종류로는 단령, 직령, 심의,

창의류, 철릭, 도포, 주의, 반수의, 전복, 한삼, 바지 등이 있으며 그 중 목판당코깃은 직령, 창의, 도포 등 3벌이 있었다.

영조는 조선 제21대 왕(1724~1776)으로 조선 역대 왕 가운데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고 사회·문화·산업·예술의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하였다. 영조의 유물은 과거사에서 발견된 담청색 사로 만든 도포가 있다. 발원문을 통해 1740년에 시주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군은 숙종의 6남으로 영조의 이복동생이다. 연령군의 유물로는 홍색 단령과 직령이 있으며 이들은 사자암 목조불상 복장 속에서 자부인 낙천군부인 서씨의 저고리와 이상궁의 당의 함께 발견되었다⁴³⁾. 모두 목판당코깃이 달려있다.

정익은 1652년에 출생하였으나 사망 시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묘비명에 의하면 경상위도 수군절도사, 삼도 수군통제사를 지냈으며 벼슬등급은 중 2품 가선대부⁴⁴⁾로 무관 당상관이었다. 정익의 유물은 황해남도 태탄군 지촌리에서 출토되었으며 철릭 외에 목판당코깃 저고리와 사복바지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착용자의 신분을 분석하면 무관인 정익을 제외하면 모두 왕을 비롯한 왕족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자 목판당코깃이 왕족의 복식 특징, 즉 '궁중양식(宮中樣式:宮樣)'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생존한 왕족들의 유물⁴⁵⁾로부터 조복 이외에 목판당코깃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군의 경우도 3벌을 제외하고 모두 칼깃 유물뿐이어서 왕족의 특징이라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왕족이 아닌 중 2품의 무관의 목판당코깃 철릭도 많은 철릭 유물 중 단 한 벌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을 세운 나라에서 하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대부가에서도 일부 착용되었던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 나온 후 연구가 더 되어야 규명이 될 듯하다.

3. 깃의 변천과정 중 목판당코깃의 출현

조선시대 여자의 복식 중에서 깃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은 저고리이다. 남자의 저고리가 포의 속옷 역할을 했던 것에 반하여 여자의 저고리는 외의(外衣)로서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소재의 종류도 다양하고 색도 화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자의 복식에도 원삼, 장의, 두루마기 등의 포가 있으나 깃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자 저고리의 깃의 변천은 곧 여자복식 깃의 변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제가 된 깃의 종류가 목판당코깃이므로 남녀 복식에 목판당코깃이 나타난 시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여자 복식의 목판당코깃

<표 4>는 착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 중 목판당코깃 저고리들만 모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신언식의 자부인 양천허씨(1566-1626)의 것으로 총 4점의 저고리 중 한 점에 목판당코깃이 달려있었다. 다음은 광해군비 유씨(1576-1623)의 유물로 목판당코깃의 저고리 1점과 당의 2점이 전해지고 있으며⁴⁶⁾ 구례손씨(1576-1626)와 진(傳) 박장군의 유물 등에서 목판깃과 목판당코깃의 저고리가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남양홍씨(1584-1654) 이후부터 화순옹주(1720-1758)까지는 저고리와 당의에서 목판당코깃만 나타나고 있으며 청연군주(1754-1821)의 여러 벌의 저고리류 중 노년기에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당의 한 점에서 깃머리가 둥근 당코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목판당코깃은 임진왜란(1592-1598)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되었으며, 목판깃과의 혼용기를 거친 뒤 임진왜란 후인 17세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산·정착되어 19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깃머리 형태가 둥글게 되어 당코깃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조선시대 당코깃 저고리류 유물

성명	본관	생몰년도	저고리			당의		비고
			목판깃	목판당코깃	당코깃	목판당코깃	당코깃	
신언식 자부허씨	양천	1566-1626	3	1				혼용기
광해군 비 유씨		1575-1641 1576-1623		1		2		
변유연 처 손씨	구례	1576-1626	1	1				
傅 박장군	밀양	임난 후로 수정	3	3				
정양우 처 흥씨	동래 남양	1584-1654		2				목판 당코깃
정광경 처 민씨	동래 여흥	1586-1656		10				
임계백 처 허씨	풍천 양천	1598-1639		2				
전택 처 이씨	경주	1612-1684		2				
이지원 처 유씨	문화	1616-1685		6				
최원립	탐진	1618-1690		4				
김대경 처 원씨	원주	1632-1695		1				
김덕원 처 이씨	전주	1634-1704		20				
한무석 처 허씨	양천	1630년 말 -1660년 초		4				
이황 처 이씨	계산	1651-1724		4				
홍우협	남양	1655-1691		3				
의원군부인 권씨	안동	1664-1722		15		1		
이단하 처 송씨	은진	1680년경 1700년대 말		1 2				
연령군 자부 서씨	달성	17세기 말 -18세기 초		1		1		
숙경부인 윤씨	파평	1735-1754		5				
김한성 화순옹주	전주	1720-1758 1720-1758				2		
청연군주	전주	1754-1821		6(?)		5	1	당코깃 출현

2) 남자복식의 목판당코깃

조선시대 깃의 변천과정 중에서 남자복식의 목판당코깃의 출현 시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조복과 제복은 제외한 남자 목판당코깃 유물 중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광해군(1575-1641)의 창 의이다. 이 옷 안자락에 “乙亥生朝鮮國王萬歲”, 안고

름에 “乙亥生主上殿 下壽萬歲”라는 명문이 적혀 있는 것⁴⁷⁾을 통해 광해군이 등극한 이후(1608-1623)인 17세기 초의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늦은 유물은 영조(1694-1776)의 도포(1740)이다.

따라서 남자복식에 목판당코깃이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표 5〉 깃의 변천과정 중 목판당코깃

분류 \ 시기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남자 깃	—————		=====	=====	=====	=====
여자 깃	-----		=====	=====	=====	-----

이중목판깃 ————— 목판당코깃 ===== 당 코 깃 ----- 칼 깃 -----
 목 판 깃 ----- 조복, 제복 ===== 이중칼깃 =====

의 약 100년 동안으로 볼 수 있으며 여자 목판당코깃의 유행기간과 중첩됨을 알 수 있다.

그 당시는 임진왜란(1592-1598)·병자호란(1636-1637) 후의 전후 수습기간이자 대외적으로는 명·청 교체기(1644)였다. 당시 조선은 반청감정으로 인해 명의 멸망 후에도 청의 제도를 거부하고 구제인 명의 양식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양난을 겪으며 소실된 부분은 국속과 접목하여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며 자주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래 교령이었던 조복과 제복의 깃에도 변화가 생겨 당시 유행하던 목판당코깃을 따르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고종 21년 갑신의제개혁 시에도 선성(先聖)의 유례라 하여 예외규정으로 둘 만큼 최고의 예복으로서 전통을 고수하였기에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말까지 목판당코깃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판당코깃은 목판깃에서 당코깃으로 변천해 가는 과정 중,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깃의 형태로 대부분 여자 저고리와 당의에 달려 있었다. 당시 남자의 포는 주로 칼깃형태였으나 매우 드물게 목판당코깃이 부착된 포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유교문화 상 매우 희귀한 현상이었다.

2. 남자 목판당코깃의 복식은 조복, 제복 등 예복

과 직령, 창의, 도포, 철릭 등이며 포(袍)류에서 발견되었다.

3. 깃의 변천과정 중 나타난 시점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이며 여자 목판당코깃의 유행기간과 중첩됨을 알 수 있었다.

4. 조복과 제복의 경우 본래 교령이었던 것이 양난과 명의 멸망(1644) 후 발생한 독특한 양식으로 명의 제도를 추종하되 국속과 결합하는 과정에 당코깃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의 예복이었기에 한 번 규정된 후 국말까지 형제가 변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착용자 신분을 분석한 결과 철릭의 착용자인 정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족이었으며, 정익은 종2품 무관 당상관이었다. 따라서 왕족의 궁중양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된 후 더 연계성을 찾아야 할 것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1)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3月 丁酉
…禁服妖 着衣裳之制 所以別男女貴賤也 … 今國中女子喜着長衣 若男子然 或以長衣於衣裳之間 成爲三層 … 卽史文所謂服妖者也
- 2)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연구, 일조각, p. 29.
- 3) 형태에 따라 직령과 단령으로 대분함
김미자 (1979), 민서 편복포의 옷깃에 대한 연구, 가정학회지, 14(1), p. 29.
- 4) 형태에 따라 直領, 圓領, 曲領, 盤領, 方領으로, 문양에 따라 黻領으로 나누며 세부형태에 따라 반달깃, 목판깃, 반목판깃, 동구래깃, 당코깃으로 분류하였다.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95.
- 5) 고복남. 앞의 책
 - 6)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p. 215.
 - 7) 김영숙. 앞의 책
 - 8)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경 유물연구. 한국복식, 19, p. 104.
 - 9) 백영자, 최혜을 (2000). 한국의 복식문화. 경춘사, p. 289.
 - 10) 박성실 (1998). 광주 금릉리 출토 경주이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6, p. 38.
 - 11) 이계윤(1431-1489). 변수(1431-1524). 김홍조(1462-1528). 고운(1479-1530). 정운(1481-1538) 등
 - 12) 이은주 (1998). 김홍조 분묘 출토복식 자료분석. 판결사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보고서. 영주시, p. 247.
 - 13) 안명숙 (2000). 출토복식의 종류별 특징. 하천고운 출토유물. 광주민속박물관, p. 74.
 - 14) 北京 定陵博物館에 소장되어있는 이 상의는 대금식이며 방령깃을 하고 있다. 길이는 71cm로 앞·뒤 동일하며, 화장은 81.5cm로 넓고 긴 소매가 달려있다.
 - 15)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p. 223.
 - 16) 고복남. 앞의 책, p. 381.
 - 17) 김동욱, 유송옥 (1979). 충북 청원군 전박장군 출토유물. 중요민속자료보고서, 83, 문화재관리국.
 - 18) 「朝鮮王朝實錄」太宗 16年 1月 丙午
 - 19) 「朝鮮王朝實錄」世宗 8年 2月
群臣凡大朝會 服朝服 一品 … 赤羅衣 白紗中單 俱用青飾領緣 赤羅裳青緣 大帶赤白二色絹 白襪黑履角 簪 … 同一品 … 五六品冠二梁 革帶用銅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織成 練鵝花錦 下結青絲網 綬環 二用銅笏用槐木
 - 20) 유희경, 김문자 (1999).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11.
 - 21) 단령의 받침옷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구, 옆선, 밑단이 3-4cm 간격으로 단령과 징겨져 있었다.
김미자 (2001). 의원군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 박물관, pp. 213-214.
 - 22) 「朝鮮王朝實錄」世祖. 2年 3月 乙亥
兵曹啓 前此行幸時 近仗或着青衣 惑紫衣. 服色無章 請自今 禮行則用紫衣緞子 鶴髦自餘 用青衣皮鶴髦鶴髦從之.
 - 23) 黃態履 外 1人. 앞의 책, p. 260.
古时用鶴羽捻线 织成面料. 制成衣身宽长曳地的衣着. 披于身上. 称为鹤髦 或羽衣. 宋代文人. 诗客. 隐士用布制作. 披于身外
 - 24) 「高麗事」列傳 卷第十
…以烏中鶴髦 常侍左右…
 - 25) 임진왜란 전후에 생존한 인물의 출토유물 창 의는 鄭休復(1529-1604), 文益新(1556-1645), 申彥滉의 자부 許씨(1566-1626), 광해군(1576-1640)의 유물이 있다.
 - 26) 「문화재 대관」과 「의」에는 직령포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옆트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의류로 생각된다.
 - 27) “愚謂士子之出入 衣服不可以爲冠者所服直領公服故 就直領稍變其制爲道袍也…”
 - 28) “…世俗所謂道袍者實直領之制…”
 - 29) 김동욱 (1983). 임난 전후기의 출토복식. 임난전후 출토복식 및 상제.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서, 8, p. 68.
 - 30)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 238.
 - 31) 장인우 (1995). 조선중기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8-79.
 - 32) 임영자 (1990). 한국의 종교복식. 아세아문화사, p. 19.
 - 33) 이은주 (1998). 도포형태의 전래와 발전양상에 관한 실증적 고찰. 복식, 36, p. 22.
 - 34) 「朝鮮王朝實錄」宣祖 40年 4月 癸巳
“草綠袂道袍”
 - 35) 「朝鮮王朝實錄」孝宗 8年 1月 癸丑
“道袍之制 亦自壬辰後有之矣”
 - 36) 이은주. 앞의 책, p. 8.
 - 37) “당시(명종 19년, 1564) 윤원형이…도포를 입고 나막신을 끌고 계단을 오르자 공(곽월)이 노하였고 이를 듣는 자들이 기뻐했다.”
 - 38) 박성실 (1992). 앞의 책, p. 115.
 - 39) 「增補文獻備考」卷79 禮考26 章服 1
“유형원(柳馨遠)이 말하기를, “구례(舊例)에는 공복(公服) 안에 반드시 철릭을 입었었다. 속칭(俗稱) 고도철릭[固道帖裏]인데, 바로 용복(戎服)이다. 때로 혹은 첩고(疊鼓)나 첩종(疊鍾)이 있으면 백관들이 즉시 신지(信地 규정된 위치)에서 열(列)을 지어 공복만 벗으면, 다시 입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이것이 용복이 되었다. 대저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는 뜻인데, 이제는 이 제도를 이미 폐하였다.”하였다.” 자료출처: 한국학데이터베이스
<http://k5000.nurimedia.co.kr/intro.asp?Book=증보문헌비고>
 - 40) 조복과 제복은 관리들이 착용했던 공적인 예복이므로 착용자 분석에서 제외한다.
 - 41) 뒷 책
 - 42) 김성환 (2001). 인평대군과 의원군일가 묘역의 피장자와 행략.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84.
 - 43) 유송옥 (1991).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서울: 수학사, p. 363 참조.
 - 44)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V). 서울대학교출판부, p. 69.
 - 45) 탐릉군(耽陵君, 1636-1731), 밀창군(1677-1746), 정간공 이익정(1699-1782) 등
 - 46) 그러나 두 인물의 생존기간이 거의 중첩되며 광해군 비가 왕족인 등으로 목판당코깃이 당시 궁중양식에서 비롯되었다면 광해군비가 먼저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47) 석주선 (1996). 의.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p. 151.